

편지는 없고, 꿈에서 만나

최리외

*

극장이 문을 연 것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시기였다.

이 문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선형 철제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내려가면 지하 2층,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극장이 나타난다. 올해로 꼭 30년이 된 오래된 극장의 이름은 포스트(Post)로, 공교롭게도 우편(post)과 동의어다. 언제나 실험적이고 앞선 예술을 선보이자는 야심을 담아 한국 최초의 민간 운영 무용전용 소극장으로 지하 3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짓고 출발했으나 재정난으로 건물이 팔리고 현재는 지하 공연장만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이곳에서 최근에 공연이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고, 거의 없었던 듯하다고, 낙엽이 아직 지지 않은 11월 첫 주에 무대 셋업을 위해 방문한 이들은 생각한다. 붉은 벽돌과 철제 계단과 몇 분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하며 온종일 극장을 지키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있는 곳.

*

포스트극장에서 <편지는 없고> 첫 공연이 열리는 주말, 낙엽은 아직 지지 않았고 오래된 건물의 화장실 안에는 모기가 날아 다닌다. 11월 중순을 향해가던 시기에도 여전히 모기가 있는 날씨였다. 이상한 날씨. 등반이 없는 객석 여덟 줄이 생겨났고(공연이 끝난 후 무대를 치우던 사람들은 객석을 서랍처럼 통째로 접어 벽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대 안쪽 곳곳에는 수북하게 종이 더미가 쌓인다. 언젠가, 올 가을 내내, 구겨지고 갈라지고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진 종이들. 조명을 받으면 흰 종이는 각기 다른 빛깔로 빛난다. 새하얀 눈발이자 창백한 감옥이자 공중에 떠다니는 납작한 공간. 시노그래퍼는 수십 장의 종이를 자르고 붙이고 겹치게 깔아 놓는다.

하우스 오픈은 공연 시작 10분 전. 무대감독과 조연출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관객들은 나선형 철제 계단을 내려다보며 서 있고,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책자를 받아 읽는다. “춤·시·꿈 3부작 개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활동하던 한연지는 팬데믹으로 돌연 닫혀버린 극장 문 앞에서 관객에게 편지를 쓰기로 다짐한다. 2021년, 그는 편지 아홉 장과 사진 두 장이 담긴 두툼한 검정색 편지봉투를 관객의 집으로 부친다. 그 봉투의 한켠에는 하얀색 펜으로 휘갈겨 쓰여 있다. 답장 주세요.”

답장을 보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지하 2층에 자리한 공연장에서 한 층 더 철제 계단을 밟아 내려가면 나오는 출연자 대기실. 답장을 보낸 첫 번째 관객 하은빈은 이끼라는 이름으로 평상에 앉아 노래를 부른다. 이끼라는 이름으로 ‘나와 추상’이라는 제목의 노래와 ‘등’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두 노래의 가사는 공연 무대 위에서 분절되어 낭독된다. 답장을 보낸 두 번째 관객 최리외는 평상에 앉아 노래를 듣는다. 그는 노래를 무수히 듣고 따라 불러 가사를, 시를 전부 외운다.

나와 추상 나와 너

첫 번째 추상은 죽어 있었고

두 번째 추상은 살아 있었다

고통에 몸서리치는 방식으로

나와 무엇 사이에는

건드리지 않기로 한 폭력이 있다

그것은 묘연하게 죽어가거나

죽어 있던 걸 살아나게 한다

(...)

하지만 고통은 사랑받을 수 있지

하지만 고통은 사랑받을 수 있지

그 등

언젠가 칼을 깊이 넣어 길게 가른

(...)

바람을 맞으면 곧은 금속의 냄새
갈라진 것들은 다시 붙지 않았고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꿈속에서
없는 등이 뒤돌아 나를 안네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꿈속에서
없는 등이 뒤돌아 나를 안네

한연지는 평상 위에 앉아 가발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다. 가을을 통과하며 찬란한 은빛의 가발은 전부 뒤엎기고 푸석해졌다. 한참을 빗질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원래가 있을까? 편지를 쓴 사람과 첫 번째 관객과 두 번째 관객은 소리 없이 묻는다. 원래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토록 반복하여 수행하는 모든 노래와 발화하기와 움직이기는 어째서 똑같이, 원본과 동일하게 재현될 수 없는 걸까? 어째서 모든 꿈처럼, 다시 읽히는 모든 책처럼,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이들처럼 왜 모든 만남은 매번 달라지고, 사랑의 모양은 왜 매 순간 달라지는 걸까? 우리가 얼굴로 만나고 등을 보이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입술을 떼는 모든 찰나들이 어째면 매번의 번역일까? 하나의 목소리가 성대를 거쳐 발화되는 순간, 사실은 매번 다른 번역이, 번역자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원문의 의미와는 지극히 무관할 수 있는 문장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건 아닐까? 들린다는 건, 듣는다는 건, 듣는 자가 그에 맞추어 곧장 반응할 수도, 발화자와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대화를, 편지를, 노래를, 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빗나가고 엇나가며 미끄러뜨리는 건 아닐까? 우리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상대를 향해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멜로디를 입히고, 어떤 움직임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라면, 실은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결코 닿을 수 없고 영영 헤어져야만 하는 모든 찰나로 이루어진 편지 한 통과도 같은 그것이야말로 진실인 건 아닐까?

*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둥글게 선다.
꿈에서 만나.
한연지가 말한다.
하은빈과 최리외는 고개를 끄덕인다.
셋은 가지런하게 흠뻑인다.
안무가는 객석으로, 드라마투르그는 객석으로, 낭독가는 객석으로.
모두가 객석에 앉아 있다. 모두가 관객이다. 거대한, 텅 빈, 종이 한 장을 바라보는.
그렇게 공연이 시작된다.
오래된 냄새가 나는 극장에서.
낙엽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

이미 찢겼지만 다시 찢겨야만 하는 이후의 삶이 있다.
(이제니, ‘발화 연습 문장 – 이미 찢겼지만 다시 찢겨야만 한다’)

*

꿈에서 만나.

11월 23일 밤, 문학살롱 초고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낭독자는 생각한다. 꿈에서 만나. 그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무대 위에서 발화한 어느 문장도 입안에서 굴러본다. 같은 꿈을 꾸는 꿈. 같은 꿈을 꾸는 꿈은 불가능하다. 꿈에 진입한 누군가의 등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 등은 결코 가 닿을 수 없는 백지다. 무언가 쓰여 있지만 읽을 수 없다. 꿈꾸는 자가 나에게 부친 편지가 아닐 수도 있을, 그 가능성만으로 마음이 미어져 그 등을 길게 가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나는 언제나 닿고자 했지. 낭독자는 생각한다. 닿고 싶어 손을 뻗고 발을 구르고 등을 껴안고 그 등이 뒤돌아 봐주기를, 나와 눈을 맞춰 주기를, 언제나 열린 귀로 내가 힘겹게 꺼낸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지. 붙잡히지 않는 것들을 언어라는 형상으로 번역하면서. 그 것이 얼마나 무수한 실패를 이미 담지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같은 꿈을 꾸는 꿈을 꾸면서.

누군가를 지극한 애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서 발하는 것들을 듣고, 그를 깊이 안으려 한 사람이, 결국 그에게서 반사되어 반짝이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마음을 읽게 되는 일. 어느 순간 내게로 번역되어 오는 내면. 그 번역이 정확하다고

믿는 마음. 비로소 어떠한 형상을 이루는 관계. 눈부신 바다 위, 물결치는 태양빛의 찬란함처럼. 지극히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 그런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홀하지. 그 찰나를, 그 찰나에서 비롯되는 기억을 위해 나는 기꺼이 삶에 뛰어 들었지. 기꺼이 뛰어들지.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 편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답장이 올 때까지는..... 그런데 답장이 오려나요? 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닿을지 모르는 채로요. 무언가를 오래도록 사랑해보고 그것에서 배운 것들을 옮겨보고 있습니다.”

안무가가 보낸 편지로부터, 답장 주세요라는 한 마디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낭독자는 안다. 뻗은 손에 응답하는 손이 있었기에, 그 손이 맞잡혀 여기까지 왔음을. 손과 손 사이에서 무수한 마음들이 다시금 번역을 거치며 탈락하고 변형되고 각색된다. 종이 한 장과 종이 한 장 사이에 존재하는 틈처럼, 손과 손은 영영 온전히 일치할 수 없음을 아는 채로 서로를 붙든다. 갈라진 것들은 다시 붙지 않을 것임을 아는 채로.

편지는 없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 문장을 소리 내어 말하고 낭독자는 꿈으로 진입한다.
깨어나면 그에게서조차 영영 멀어져 갈 꿈으로.